

전북교육청, 교권 침해 대응 강화

학생 욕설·폭언 등 조치 학칙에 명시·학부모 고발·법률지원단 가동 등 방안 마련

지난해 A고등학교 B학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들롱 나 해당 학교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학교는 해당 학생 부모를 소환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 학생과 목격 학생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상황을 근거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침해 학생에 대해 지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후 해당 학교는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해 C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따돌림 사건에 관해 D학부모와 상담 도중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학부모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한데 이어 다음 날 학교를 찾아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D학부모에게 사과조치와 함께 교사와 일대일 면담 금지를 내렸다.

이같은 사례처럼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은 총 15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최근 3년 간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자료출처: 전북교육청

연도	학생 교권침해					학부모 침해	합계(건)
	폭행	욕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3	0	101	3	23	2	12	141
2014	3	74	1	25	5	3	111
2015	3	104	9	27	5	2	150
계	6	279	13	75	12	17	402

있다.

교권침해 대부분은 학생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보면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순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전북 교단의 울타리가 점차 붕괴되자 전북도교육청이 교권보호에 두 팔을 걷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의 욕설과 폭언 등 교권 침해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보호방안을 보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 학부모 교권 침해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과와 고발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ee센터를 통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교육적 지도도 병행된다.

또 교권 침해사건에 대한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교권침해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분쟁의 조정 등을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청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보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도 가동된다.

또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5월 3일 화요일 해돋이 05:37 | 해질 19:20 달돋이 03:11 | 달질 15:12

날씨 최저기온은 15~17도 최고기온은 16~18도

청소년 전체 인구의 20%도 안돼

'올해 통계' 18.5%... 2060년 11.4% 전망
초등학생인구 5.3% 불과·다문화학생 1.4%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9~24세) 인구는 937만8000명으로 총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5080만1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2.8% 증가했지만, 청소년 인구는 937만80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10.4%나 줄었다.

총인구 중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36.9%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0년에는 11.4%가 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학령인구(6~21세)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학령인구는 860만9000명으로 2010년 1001만2000명에 비해 140만3000명 감소했다.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가 1970년 17.7%에서 2016년 5.3%로 12.4%포인트 감소해 다른 학령 연령대보다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6만8000명)에 비해 21.7% 증가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다.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생 중 비중이 73.0%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16.8%),



한옥마을에서 미녀들과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자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회장 성정실)초청으로 최근 전주를 찾은 세계수퍼탈렌트 일행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지체험을 한 후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운천 당선자와 세계수퍼탈렌트 일행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등학교(10.2%)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73.7%는 '자신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

다.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국적이 다른 부모 나라의 사람이라는 대답이 24.5%였다.

2014년 매일 부모와 저녁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37.5%로 3년 전 33.4%보다 4.1%포인트 증가했다. /박용주 기자



네팔 유학생, 전북대서 하나되다

전국 네팔유학생회 주최 체육행사 개최

국내 네팔 국적 유학생들이 전북대학교에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네팔유학생회(Society of nepalese Students in Korea)가 주최한 네팔 유학생 체육행사가 지난 1일 전북대 일원에서 개최된 것.

이날 체육행사에는 전국 네팔 유학생 및 가족 150여 명이 참여해 체육행사와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화합하는 시간을 가지며 모처럼 타국살이의 고충을 털어내는 한때를 보냈다.

전북대 국제협력부와 유학생지원센터는 이들의 경기 진행을 돕기 위해 점심 식사와 음료, 구급약품과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을 제공해 원활한 행사 운영을 도왔다.

이에 전북대 네팔학생 대표인 바타라이 서우람 학생은 "많은 네팔 유학생들이 하나되는 자리를 전북대가 적극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전국의 네팔 유학생들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관광문화 우수시설 견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안산, 수원 등 타시도 특성화 시설 및 관광문화 우수시설 비교견학에 나섰다.

첫날 위원회는 안산의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지원 조례와

맞춤형 지원시설(주민센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월드컵 준비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이 외에 수원화성 및 행궁, 한국민속촌 등을 탐방했다. /김영재 기자

제4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6.5.7(토) - 8(일)

황토현전적지 및 정읍시 일원

주최: 정읍시 | 주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문의: 063)538-1894 | www.황토현.com

행사 시간	5월 7일 (토)	행사 장소
10:00	• 황토현 학생 백일장·사생실기·서예대회	녹두광장
	•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고부면 신중리
12:30	• 정읍무형문화재 합동발표회	특설무대
14:00	• 제49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교육관
	• 제6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교육관
15:00	• 2016 신(新)만민공동회	교육관
	• 정읍생활문화예술동호회 - 녹두꽃 자치리리지고	특설무대
18:00	• 황토현의 밤	특설무대
행사 시간	5월 8일 (일)	행사 장소
09:00	• 제19회 황토현전국농악경연대회	사발동문광장
09:30	• 제11회 죽봉전 및 제14회 조선세법대회	녹두광장
10:00	• 제8회 황토현전국역사페스티벌	특설무대
11:00	• 구민사 갑오선열 위패봉안례	구민사
13:30	• 황토현 동요한마당	특설무대
	• 제10회 황토현전국청소년토론투론대회 - 결선토론	교육관
15:00	• 정읍문화예술인한마당 - 정읍예총	특설무대
행사 시간	전시 및 상설운영 / 5월 7일(토) ~ 8일(일)	행사 장소
10:00 ~ 18:00	• 전시 - 동학농민혁명 주제전시관 • 상설운영 - 체험마당, 먹을거리마당, 홍보연계마당	
5/11(수) 11:00	• 122주년 동학혁명황토현전승기념식 - 천도교	감동동학혁명기념탑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